

# “어업·어촌 부흥 위한 ‘어촌진흥청’ 필요”

### 2045년 어촌 84.2% 사라질 위기 처해 윤재갑, 정부에 획기적 조직 개편 촉구

소멸 위기에 처한 우리 어업과 어촌의 부흥을 위해 ‘어촌진흥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24일 “오는 2045년 전체 어촌의 84.2%가 사라질 위기”라면서 “어업·어촌의 소멸을 막기 위해 획기적인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의하면 해양수산부는 ‘제3

차 어촌어항 발전기본계획(2020-2024)’을 통해 어촌지역의 58%를 이미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했으며, 전체 어촌의 84.2%가 오는 2045년에는 소멸될 위기에 처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어촌의 고령화율은 2010년 23.1%에서 2019년 39.2%로 16%p가 증가했다. 반대로 전체의 42%를 차지하던 50세 미만 인구는 불과 10년 만에 17%p 포인트가 감소한 25%로 집계됐다. 더 큰 문



제는 어촌의 소멸보다 어업의 소멸이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다.

2014년에서 2018년 5년 동안 어촌지역(492개 읍·면·동)의 인구는 연평균 0.06% 감소한 반면, 어가인구는 연평균 4.6%가 감소해 ‘탈 어촌보다 탈 어업’ 현상이 더 심각한 문제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도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귀어인 유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귀어 인구는 2015년 1천73명을 기점으로 매년 감소해 2019년에는 959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때문에 결국 현행 방식으로는 어업·어촌의 소멸을 막을 수 없고 어촌진흥청을 만들어 각 어촌계와 지자체, 그리고 수협중앙회 등 유관단체로 흩어져 관리되고 있는 우량종자의 보급과 신기술 어구·어법의 지도교육 사업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재갑 의원은 “어업과 어촌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어촌진흥청이 필요하다”며 “어촌진흥청 신설이 정부조직법 개정 등으로 힘들다면 적어도 난립된 공공기관의 유사업무 일원화를 통해 어업 어촌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가칭)어촌진흥추진단’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진수기자

## 따뜻한 질책 속, 대안 제시 ‘명쾌’

국감 인물

###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올해 국감을 앞두고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전국 농어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노력과 정성을 기울였다.

조사 결과 농어민들 모두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했으나, 현장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불만족도가 높았다. 농정 및 수산행정 모두 ‘노력 대비 낮은 소득’과 ‘정부 지원 부족과 무관심’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서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특히 보건과 안보를 집중 거론했다. 섬 지역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해양원격응급의료 시스템의 부족한 인력과 다수의 소형 함정에는 시스템 설치도 불가능한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청와대·공항과 함께 ‘급급 보안시설’로 분류된 항만의 허술한 보안 검색도 지적하지 않았다.

또한 해양수산부의 1천300억 예산이 소모된 바다 네비게이션 사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맥락을 짚고,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사용과 막대한 예산에 비해 부족하기만 한 사업 성과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을 이어갔다.

어민들의 해상 안전을 위한 핵심 기술은 미비하고, 보급률이 높아야 서비스가



좋아지는데 서비스가 부실해 보급률도 낮아 실질적인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는 사업의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요구하는 서삼석 의원의 대안 제시에 대해 피감기관들은 “따뜻하지만 명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농민들의 당면한 시름도 잊지 않았다. 전년 대비 9.1% 증가한다는 통계청 전망에 따라 쌀 가격하락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 농림부 종합감사에서 “선제적인 시장격리대책으로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정부공공비축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라”고 적극 촉구했다.

아울러 “농가들이 양배추 가격 급락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당장은 산지 폐기 등 긴급 수급 안정 대책을 중장기적으로 채소류 주산지 지정에 양배추 품목을 추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서 의원은 “지난 11일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 당선자를 직접 만나 농어업의 중요성과 현실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며 “국가 안보 차원의 농어업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인식을 기대한다. 농어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항상 더 듣고, 더 보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진수기자

## 전두환 일가 재산, 공매 낙찰금 476억원 낙찰률 67%

### 용산구 빌딩 180억원 가장 높아

‘전두환 범죄 추징금’을 받기 위해 공매된 전 씨 일가 자산의 낙찰금액은 4백76억원이며, 낙찰률은 67%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부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은 24일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두환 일가 재산 공매 현황’에 따르면, 전두환 일가로 부터 압류된 재산은 총 18건으로 감정가는 7백15억원이었다. 하지만 잦은 유찰로 낙찰가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

압류재산 중 감정가보다 높은 낙찰가에 매각된 건은 5건이었다. 전 씨의 전 며느리 최 모씨 소유의 다이아몬드 등 보석류 108점은 감정가인 5천8백만원 보다 높은 6천3백만원에 낙찰됐다. 명품 가르띠에 시계 4점도 감정가보다 2천만원 높게 팔렸다. 오산시 양산동 19-87 등 부동산 3건도 감정가에 비해 높은 가격에 낙찰됐다.

낙찰금액이 가장 높은 압류재산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신원플라자 빌딩이었다. 당초 감정이 195억원이었으나 2회 유찰 끝에 180억원에 낙찰됐다. 다음으로 서울 서초구 부동산이 81억원으로 낙찰가격이 높았다. 이순자와 공동명의로 된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은 51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전재국(전두환 장남), 전재용(전두환 차남) 소유의 서울 서초구 서초



### 전두환 비석 밟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2일 오전 광주 북구 망월동 5·18 구묘역(민족민주열사묘역)을 참배하기 위해 이동하며, 묘역 입구 땅에 박힌 전두환 비석을 밟고 있다. 이 후보는 동행인들에게 “윤석열 후보도 여기 왔었느냐”고 묻은 후 “왔어도 존경하는 분이니(비석은) 밟았겠네”라고 말했다.

/김재리 기자

동 2필지 81억원 ▲전재국 소유의 서초구 주택 35억원 ▲전효선(전두환 딸) 소유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주택 13억원 ▲전효선 소유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3필지 14억원 ▲전재국 소유(부부플러

스 비상장주식 20만4천주 6억원 등도 1회~11회 유찰을 거쳐 최종 낙찰됐다.

민형배 의원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전박한 역사인식과 망언 등 광주와 오월영령에 대한 모독을 근절하기 위해

서라도 최소한 전두환에 대한 법원 추정금부터 제대로 견어야 할 것”이라며 “자산관리공사와 국제정 등 관계기관 협력 강화로 추징금 몰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 안철수, 대선 출마...이르면 31일 선언할듯

### 오늘 영광 원전 방문...최근 여야 겨냥 비판 수위 높여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대선 출마 결심을 사실상 굳히고 최종적으로 출마 선언 시점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24일 통화에서 “안 대표가 11월5일 이전에 자신의 결심을 국민들에게 말씀드릴 것으로 보인다”며 “더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안 대표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출되는 11월5일 이전에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안 대표는 25일 전남 영광 원전을 방문,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정조준해 비판할 것으로 전해졌다.

호남을 시작으로 지역을 다니며 중도층을 겨냥한 미래 비전과 정책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안 대표는 다만 직접적인 언급은 아끼고 있다.

안 대표가 대권 도전을 공식화하면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다.

안 대표는 최근 들어 여야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왔다.

그는 SNS 등을 통해 “대선이 대통령이 아니라 상대 진영을 초도화할 왕을 뽑는 선거가 되어가고 있다”며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다.

또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잘 드러냈듯 ‘세상이 지옥’(헬조선)인데 생존전략과 미래 답은 실종되고, 과거와 네거티브만 난무한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가 출마를 선언하면 이번 대선은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후보 간의 ‘4자 구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창당을 공식화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까지 가세하면 그 이상의 다자 구도가 된다.

안 대표의 경우 제3지대와의 연합이나 국민의힘과의 후보 단일화 여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주요 변수는 안 대표의 지지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 대표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 실망한 중도층의 지지를 흡수한다면 독자 행보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 尹캠프, 김태호·박진·심재철·유정복 공동선대위원장 영입

4국민의힘 김태호·박진 의원과 심재철 전 의원,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2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캠프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이들은 앞서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캠프에 합류한 주요영 의원과 함께 캠프를 이끌 예정이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사안을

발표했다.

경남지사를 지낸 3선의 김 의원은 윤 전 총장의 부산·경남(PK) 지지 확대를 위한 카드로 보인다.

야권 내 대표적 ‘외교통’으로 꼽히는 4선의 박 의원은 캠프의 외교·안보 정책 수립

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게 캠프측 평가다.

심 전 의원과 유 전 시장은 수도권 표심 결집에 보탬이 될 것으로 캠프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옛 친박계에 속했던 유 전 시장의 합류에 대해 ‘화합형’ 인사로 자평하는 분위기다.

/연합뉴스

그린알로에

#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